

〈특별기고〉

제주도의 검질과 농업요(農業謠)

김 동 수*

Weeding and Agricultural Songs in Jeju

Kim, D.S.*

머 리 말

1995년 5월 19일 봄학회 한국잡초학회가 유서깊은 3多의 섬 제주의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제주도는 언제 와 보아도 역시 내륙과는 다른 특이한 풍치를 풍기는 곳이다.

아열대 지역을 연상케하는 각종 특이한 식물의 군락 중산간지대를 중심으로 한라산 정상까지 높이에 따라 다른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육지에 없는 식물만도 수백종이 자생하고 있다 하니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식물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오현도 학장은 환영사에서 전통적으로 제주의 아낙네들은 생활의 수단으로 해녀의 물질과 “검질” 매는 일에 한평생 매달려왔으며 이에 따른 애환도 많았다는 설명과 함께 잡초학회가 이곳 제주에서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회원여러분을 크게 환영한다는 요지의 환영사가 있었다.

여기에서 검질이라는 용어에 대해 큰 흥미를 갖게되면서 그 뜻을 알아보고 애환에 남긴 민요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제주농업의 특징

제주의 면적은 1,827Km²로써 우리나라 전국토 면적의 1.84%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기온 15~16℃의 비교적 온난한 기후, 연평균 1,500~2,000mm의 충분한 강수량.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경관 한라산을 정점으로한

다양한 지형 및 희귀식물군락의 분포 등을 배경으로 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도하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은 '80년대까지만 해도 50%를 상회하였으나 최근들어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어 1993년에는 33.5%로 줄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임야 목장용지 등을 제외한 경지면적은 529Km²로써 전체면적의 28.9%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밭(20.1%)과 과수원(8.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논은 0.5%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은 밭작물에서도 제초제 사용기술이 일반화되고 있어 제초비용과 노력이 많이 절감되고 있겠지만 전통적인 인력제초에 의존하던 때까지는 밭작물이 대부분인 제주농업의 특성상 제초에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현재까지도 논농사에 비해 많은 제초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참고로 농림수산부 작물통계('94)에서 보면 제주의 주요작물중 총생산비에서 제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논벼 2.1%에 비해 고구마 3.1%, 맥주맥 3.8%, 당근 7.8%, 참깨 4.2%, 및 콩 8.2%로써 대부분의 밭작물이 논벼보다 제초비용의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2. 주요잡초의 제주방언

밭이 대부분인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주요잡초 38종중 특별히 제주방언으로 불리는 몇가지 잡초를 수록해보면 표 1과 같다. 어떠한 연유로 이 잡초들이 방언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 농업과학기술원

표 1. 주요잡초의 제주방언

잡초명	학 명	방 언	개화기
수 영	<i>Rumex acetosal</i>	뺨 술	5~8월
비 립	<i>Amaranthus margostanuse</i>	비 늻	7월
쇠무릎	<i>Achyranthes japonica</i> (Mig)NaK	우슬초(말마작클)	여름~가을
쇠비름	<i>Portulaca oleraclea</i> L.	췌비늻	6~9월
까마중	<i>Solanum nigeum</i> L.	개삼동	5~7월
질경이	<i>Plantago aciatica</i> L	배채기	6~8월
바랭이	<i>Digitaria sanguinalis scopoL</i>	재완지	6~10월
새완두	<i>Vicia hiraute</i> A GRAY	생이콩(가마귀콩)	5~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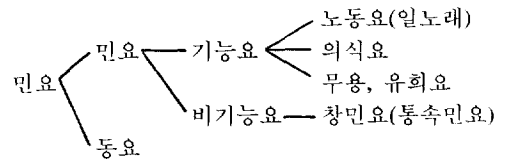
지 그 배경은 확실치 않으나 그 대부분은 최근 유입된 외래잡초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제주도에서 자생, 번식해오면서 우점종의 위치를 차지해오던 고유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3. 제주민요의 배경과 분류

제주도는 민요의 노다지이다. 제주민요에는 제주민의 삶의 실정과 제주민의 생각이 속속들이 배어 있으며 제주의 지리, 역사, 사회, 생업, 문화, 민속 및 풍토 등이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꼭 가뭇차고 오묘하다.

산과 들과 바다가 우아한 아름다움이 사철 깔린 섬이다. 한라산을 정점으로 갖가지 동식물이 사는 수풀과 계곡, 기괴한 바위와 동굴 불쭉불쭉 솟은 봉우리들, 활짝 펼쳐진 초원과 목장 탁트인 백사장과 그림같은 섬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땅은 메마르고 바람은 세차고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눈은 드물고 돌맹이는 지천으로 깔리고 물난리를 번번히 겪어야 했고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하고 알맞은 환경이었다. 여기에다 제주도민은 굴곡많은 눈물의 역사와 맞닥뜨려야 했으니 열심히 살았어야 겨우 살아 남을 만큼 지난날의 제주민의 삶은 사람살이라 볼 수 없었다. 모진 부역에 시달리고 왜구와 몽골의 침략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는 도민들이 숭한데도 해마다 과중한 진상을 바쳐야되는 그날그날의 삶을 간신히 꾸려오는 등 생존 그 자체가 문제였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모진 환경과 역사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그림 1] 제주민요의 분류

실로 튼튼한 삶을 꾸려갔다. 제주민요는 도민들의 이러한 삶의 반영이며 따라서 일노래가 유별스럽게 많을 뿐아니라 그 사설이 엄청나고 뜻이 깊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제주민요의 특징으로써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일노래의 종류가 많다는 것이며 그중에는 제주에서만 전해지는 일노래의 종류가 상당수에 이르며 특히 여성 노동요(謠)의 사설이 숭하고 빼어난 것이 특색이다. 제주민요의 실상을 파악하는데는 그림 1과 같은 큰 분류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서 勞動謠(일노래)를 살펴 보면 그 기능에 따라서 농사지으면서 부르는 농업요(農業謠), 곡식을 갈고 찜고 빵으면서 부르는 제분요(製粉謠), 고기잡이나 해녀의 물질을 치르면서 부르는 어업요(漁業謠), 나무나 풀 따위를 베고 쪼개고 나르면서 부르는 벌채요(伐採謠), 그밖에 잡일에 따른 잡역요(雜役謠)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4. 검질매는 소리

검질이라는 제주의 방언은 雜草(풀)라는 뜻으로 전래되어 오는 용어로서 검질매는 소리는 잡초(풀)매는 노래로서 통상 밭이 많은 제

주에서는 발매는 노래로 통용되고 있다.

일노래중 검질매는 노래는 농업요(農業謠)에 속하는 것으로 발가는 노래, 흙덩이 바수는 노래, 씨래질 노래, 보리거름 밟는 노래, 밭밟는 노래 및 타작 노래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제주도 민요 가운데 신을 찾고 신의 권능에 의지하는 사실이 들어 있는 노래는 발매는 노래와 밭밟는 노래밖에 없다. 그만큼 발매기와 밭밟는 일은 농사에서 더할나위없이 중요한 행위이다. 그러나 일의 어려움에 있어 발매기에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전혀없다. 그러한 요소들이 다양한 노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검질매는 소리(발매는 소리)에는 “사데” “홍애기” “아웨기” “상사소리” “더럽소리” 및 “담벌소리”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노래가 불리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조천 구좌읍 지역이 “사데”만 불리는 지역이며 서부 제주지역과 산남

지역은 전반적으로 “사데”만 노래하는 지역이다. 이지역에서 예외로 “아웨기”가 불려지는 경우는 마을이 소금제조, 향아리제조, 솔제조 등 특수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외 지역은 “아웨기”가 “사데”에 비하여 우선 불려지는 지역이다.

제주도에서 발매는 노래가 가장 발달한 곳은 홍로현이 있었던 서부 남원지역과 옛 서귀포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발매는 기간 동안 비가 자주 내려 농부들의 고통이 심했다. 땅은 비옥한 편이지만 넓은 면적은 생각도 못할만큼 잡초와의 전쟁이 치열하였다. 노래는 성읍, 정의골 일대에서 부르는 노래가 모두 조사되고 있고, 여기에 “더럽소리”라는 특별한 노래가 애창되고 있다.

두 번째 지역은 역시 포선면과 동부남원 그리고 성산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통적인 “아웨기진소리” 말고도 검질매는 “홍애

〈표 2〉 지역별 대표적인 발매는 노래(민요)

지 역	민요수	검질매는 소리	부른사람(앞소리)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4	진사데, 른사데, 진아웨기, 른아웨기	김봉옥(여)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1	사데	김경성(여)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1	진사데	강인생(여)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1	아웨기	고순선(여)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2	룬사데, 아웨기	안봉호(남), 송금철(여)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리	5	진사데, 른사데, 막바지사데, 상사되야요, 담불소리	강산옥, 김갑년(여) 강성태, 강재홍(남)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2	홍애기, 아웨기	조을선(여), 이선옥(여)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2리	3	홍애기, 담불소리, 용천검	홍복순(여), 정두옥(남)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2	진사데, 아웨기	오이생(여), 김오생(여)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1	홍애기, 진사데, 른사데	김만권(남)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1	더럽소리	안시봉(여)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1	진사데	송평우(남)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	1	룬사데	양신생(여)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1	룬사데	이화규(여)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2	진사데	진화순(여), 고윤화(여)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1	진사데	부병출(여)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	1	중간사데	양춘화(여)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	1	진사데	강옥심(여)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3	진사데, 중간사데, 른사데	김정자(여)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1	진사데	정임인(여)

기” “진사데” “른사데” “상사되야요” “용천검” 그리고 “담불소리”가 막바지 “사데”로 불려진다.

세 번째 지역은 애월일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앞선 두 지역에 이어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다. 전반적으로 유림촌이 많아 노래에도 그러한 기풍이 스며들어 있다. 네굽이 “진사데” “중간사데” “른사데” “추침사데”가 존재한다.

1989년 1월~5월 사이에 제주전역에 걸쳐 수집 수록된 지역별 검질매는 소리는 표 2와 같으며 “사데” 미곡 “아웨기” 6곡 “담불소리” 3곡 “홍애기” 2곡 및 “상사되야요” “용천검” 합성노래가 각 1곡 씩 모두 35곡에 달하며 이중 여자소리(앞소리)가 28명이며 남자소리는 7곡에 불과해 발매는 노래는 주로 여자 소리꾼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맺는 말

제주도민들이 어려웠던 삶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농업요(農業謠)의 발전을 가져온 배경이라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농작업인 발매는 일에 대한 민요인 검질(잡초) 매는 소리의 종류와 지역적인 특성에 관해 요약 정리해 보았으나 이들 민요를 부른 사람(대부분 여성)들 거의가 70대 이상의 연로한 분들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감소 추세 및 제초제 사용의 증가 등에 의해 이러한 민요들

을 애창하는 기회도 줄어들고 있어 전통민요의 계승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하겠다.

때마침 제주 문화방송이 주관하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민요들을 수집 정리하고 중요한 민요들은 녹음해두고 있다고 하니 꼭 다행한 일이다. 이번 잡초학회가 제주대학에서 개최되었음을 계기로 제주의 잡초에 얽힌 전통민요에 관해 몇자 적어보았으며 검질매는 소리 몇소절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남원읍 신흥리 민요 2

홍애기/진사대/짜른사대(발매는 노래)

<전략>

검질짓고 어~꼴 너븐 밧디다

(김이깃고) (골이 넓은 밧에)

여기야 고분채로 여의멍가자

(곧 호미로) (매어가자)

음 ~야~어~여기야 흥~

사데불령 검질매자, 아~여기여랑 사데

한소리를 노피나놓고, 아~여기여랑 사데

한소리를 낮이나놀자, 아~여기여랑 사데

<후략>

참고 문헌

1. 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해설집) 365pp.
2. 제주도, 1992, 제주의 민요 654PP.